

“ 손뼉치며 새 노래인 복음송을 부르자는 것은 잘못된 것 ”

■ 이종윤 원로목사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성전 예배의식에서 손뼉치는 일은 없었다. 이천 년 동안 사도들의 예배나 기독교인들의 경건한 교회 예배에서도 광란적으로 소란하게 손뼉치며 춤추는 일은 없었다.

시편에서 “너희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47:1)라고 한 말씀은 찬송할 때 찬양자에게 있어야 할 기쁨의 외적 표현을 요구하신 것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시를 읊을 때 고저나 리듬이 없는 단조로운 음으로 노래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에게 자칫 기쁜 마음을 상실한 채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한 것이다.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한 로마 가톨릭과 문자적 의미를 추구한 루터나 과격파들과는 달리 요한 칼빈은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는 원리하에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가령 ‘좁은 길로 가라’ 했다고 뒷골목길만 찾아다니는 우를 범치 않아야 할 것이다. 손바닥을 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환영과 존경, 지지와 보답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들이 가사나 곡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왕되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존경하며 지지하고 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정신으로 찬양하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배를 집회와 혼돈하면서 행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18, 19세기에 일어났던 대각성운동기와 서부 개척기에 있었던 변방예배(Frontier Worship)에서 행한 소위 집회를 우리나라에 처음 개척 사역을 한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참석하고 경험했던 집회를 그대로 이 땅에 이식한 것이 뿌리를 내려 그것이 예배의 전부인줄 알고 행하고 있다.

기도와 찬양 심지어 성경봉독까지도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 행위로 격하시키고 그 외 모든 것은 경험이 나 회심의 활황기에 함께 하도록 강조하는 위험한 경지를 보편화시킨 예배로 생각한다. 한 세기 동안 한국 교회 강단에서 읽혀진 개역성경에 예배라는 말을 멀리한 흔적은 이상할 것이 없다.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전혀 찾을 수 없고 경배, 섬김 등으로 번역했다. 신약에서 겨우 14번 찾아진다. 영어권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흥정역(KJV)에서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15회, 신약 75회 사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에서는 예배라는 이름이 남발되고 있다. 돌예배, 회갑예배, 기공예배 등 예배에 대한 무지가 가져온 기현상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교회가 공인한 찬송가보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시149:1) 하셨으니 구(舊)찬송보다 새 노래인 복음송을 부르자는 이들까지 있다. 새로 쓴 작곡한 노래가 새 노래라면 그것은 두 번 부르면 옛 노래가 될 것이다. 복음진리를 듣고 깨달은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 한 것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pop이나 rock 음악을 모방하고 흑인들이 많이 부른 블루스 음악의 가사들과 그 곡들은 재즈의 형태를 취한다. 이 같은 것들과 흡사한 대부분의 복음송들은 가사나 곡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보다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성경적이거나 비신앙적일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들을 교회에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 복음송을 불러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인간을 흥겹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왔나?

오늘의 교회음악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378호] 2013년 8월 10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Faustin Ndatbaye]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chan Yo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1:6-13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New Identity in Christ” Pastor
* Hymn	61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 바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일(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기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례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선교)
--	--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복음의 시작 ”

■ 막 1:1
 우리는 때때로 초심을 잃었다. 또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을 합니다. 초심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과 기초, 그리고 초심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막 1:1).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과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그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하는 일들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이루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갖가지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의 가운데 놓여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마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신 예수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 함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타 복음서보다 짧지만 그 내용은 간결하고 압축적이며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표현이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긴 족보부터 전개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처럼 한 아이의 울음소리로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처럼 신학적인 논의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결론을 먼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체 복음서를 압축한 것 같은 막 1:1에서 우리는 37가지의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서는 좋은 소식을 담은 책입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무관한 것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가가 이것은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구원의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며,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 복음은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이란 신앙의 근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언가 다른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실행하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과 화생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을 메사로 섬기는 이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마가는 복음을 기초 또는 기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초, 기본 그리고 시작이라는 의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시간적인 개념이며, 시작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에 대해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 구원의 역사는 끝이 있음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시간의 영속성, 즉 영원히 흐르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시작과 끝이 있음을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언과 함께 시작된 복음, 좋은 소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종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원한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결말을 향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이야기 할 때는 복음의 시작을 기억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종결되어지는지에 대한 인식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맺는 말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행하시고 걸어간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심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초심에는 오직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 담겨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시작은 장차 우리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한되고 일시적인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교회가 처한 형편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기회를 가장 값지고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자제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의창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오광환 장로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요 11:40 인 도 자
 찬 송 12(22) 다 함 께
 기 도 김진달 집사
 성 경 계 18:1-2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이 세상의 멸망" ... 설 교 자
 * 찬 송 165(15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0: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44(시 100)...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70(7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막 1:16-18: 8:29-34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내 뒤로 물러가라"... 김의창 목사
 * 찬 송 Hymn 459(51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위성남 권사
 성 경 막 1:23-2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권위 있는 새 교훈" ... 설 교 자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6월11일(월) - 16일(토)

오전 5시30분 분당 오란 / 피아니스트 김관환 찬양 박광갑, 김희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11-13일(장석남 목사) 14-16일(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막 1:1)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전도위원회 / 10일(주) 오후 1시30분 엘리베이터 앞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6월 세례식이 6월17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문답총정리는 6월 10일(주) 오후 1시30분에 105호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6월 10일(주) 오후 2시에 105호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에서 계속 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봉배(동증의학), 노선균(흉부외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정철웅(외과), 공민호(신경외과)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 결 혼 1. Gregory Heathco 군(Matthew Heathco 목사, Chris Heathco 사모의 장남)과 차신혜 양(14교구 차영도 집사, 정미연 권사의 장녀) / 6월16일(토) 오후1시 예한교회 3층(415-0691) / 8호선 몽천토성역 5번 출구
◆ 장 례 1.故 이기곤 집사 (9교구 김순자 권사의 부군 / 이영훈 집사의 부친) / 4일(월) 별세, 6일(수) 천국환송예배 2.故 강복희 성도 (11교구 이영주 집사의 모친 / 김정길 집사의 장모) / 7일(목) 별세, 10일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74명	251명	231명	1,356명	117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6/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 3일	헌금	46,065,600	
"	찬양운영비		7,260,000
	교회학교운영비		393,500
	구 제 비		300,000
"	경 조 비		65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81,000
	통 신 비		390,350
	차량유지비		2,401,870
	소모품비		523,000
	잡 비		1,040,000
	환경유지비		338,000
	수선유지비		423,000
	식당운영비		1,513,560
	합 계	46,065,600	15,564,280